

## “중랑천 살곶이 다리에서 서울숲까지”

-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생태교육’ 첫번째 모임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숲과 자연의 전반적인 생태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겨울 철새”로 2007년 2월 10일 토요일 서울 중랑천 살곶이 다리에서 모여 서울숲까지 걸어가며 철새를 관찰하고, 서울숲에 서식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을 내려보지 않고 같은 수평선에 놓고 보는 선생님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것이 비단 철새만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찬 미래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연학초등학교 안승숙선생님께서 아들과 함께 지도교사 생태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자연을 관찰하는 모습이 마치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된 듯이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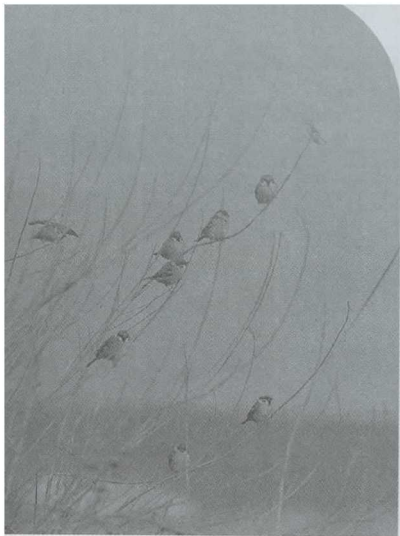
## 처음의 설렘을 안고

-참가 후기



2007년 2월 10일 추운 바람이 부는 날,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들이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가방을 둘러메고 중랑천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교사생태모임'의 첫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멀리 천안에서 오신 선생님부터 경기도, 인천, 서울의 선생님들께서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득 안고 모여 교육을 담당해 주신 박홍식 선생님과 함께 공부는 시작되었다.

중랑천 살곶이 다리에서 시작한 공부는 서울숲까지 이어졌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던 중랑천의 오리들을 망원경으로 찾으며 필드스코프로 확인하고 사진과 대조하면서 곱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흰죽지, 땃기흰죽지 등 비슷비슷한 오리들을 하나 둘 구분해 가기 시작하면서 추위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한 서울숲에서 만난 소나무, 층층나무, 참나무, 생강나무 등 나무와 풀들은 새봄을 준비하느라 겨울눈을 품고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생태모임이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앞으로 푸른숲선도원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었다.

교사생태모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그루녹색회 관계자 여러분과 흔쾌히 교육을 맡아서 해 주시는 박홍식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교사생태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올 한 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2007년 푸른숲 선도원이 더욱더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글· 장은영 / 한신초등학교 교사〉



## 중랑천 철새들 ... 그들만의 겨울나기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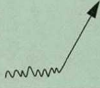

### 1. 새가 있어야 할 조건 3가지

- ① 물이 얼지 않아야 한다.
- ② 먹이가 풍부해야 한다.
- ③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

### 2. 오리들의 암컷구별이 어려울 때

- 수컷 뒤를 쫓아가는 것으로 암컷을 구분한다.

### 3. 오리 of 구분

잠수성오리	물속에서 먹이활동, 꼬리가 아래쪽으로 처짐	날아 오를때 파닥파닥 하다가 날아감 (물이 튀김)	
수면성오리	머리만 물속으로 집어넣어 먹이활동, 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음	바로 날아오름	

### 4. 중랑천에서 만난 새와 구분 포인트

-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넓적부리, 쇠오리, 흰죽지, 땡기흰죽지, 홍머리오리, 알록오리, 쇠백로, 왜가리, 꿩이갈매기, 재갈매기, 말뚝가리

#### 오리

사진과 비교하며 보세요



**넓적부리**

입이 넓적하게 생겼다.



**쇠오리**

크기가 작고 엉덩이부분에 노란색 부분이 있다.



**흰죽지**

날개 퍼면 아래 부분이 하얗고, 머리 부분과 눈이 붉다.



**청둥오리**

머리전체가 녹색이며 끝부분으로 내려오면 목에 흰 테 두리가 있다.



**땡기흰죽지**

노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 뒤에 땡기처럼 삐져나와 있다.



**홍머리오리**

머리가 붉고 부리부터 목뒤까지 쪽 노르스름한 부분(베컴머리)을 가지고 있다.



### 고방오리

수컷 겨울깃의 머리는 짙은 갈색이고 목 아래에서 머리 뒤쪽으로 흰색 줄이

나 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이며 몸통 깃털에는 검은 무늬가 있다. 목이 길어서 수면에서 물구나무선 채로 물속의 먹이를 잘 잡아먹는다.

### 흰뺨 검둥오리

부리 끝이 노란색이다.

### 알락오리

부리가 검고 엉덩이 끝이 노르스름하다.

### 갈매기



### 재갈매기

부리와 부리아랫부분이 노란색이며, 1-2년생 재갈매기는 부리전체가 검은색이고

몸이 흰 바탕에 검은 점이 많이 있다.

### 괭이갈매기

부리의 위와 아래가 검고 다리가 노란색이다.

### 백로

### 쇠백로

크기가 작고, 발끝(발바닥)이 노란색이다. 노란발로 물을 침범하려 물고기를 놀라게 하여 먹이로 잡아먹는다.

### 중대백로

쇠백로의 1.5배(왜가리 크기)이며, 발 끝이 시커맴다.

## 기타

### 왜가리

젓빛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

### 말뚝가리

날개를 퍼면 날개의 가운데(%)부분에 말뚝처럼 시커먼 점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맹금류의 일종이다. 까치한테 쫓기는 이유는 덩치가 커서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서울숲에서 만난 나무이야기

**메타세쿼이아** 잎과 가지가 마주나기한다. 중국산속에서 발견. 고생대의 화석식물이었다.

**낙우송** 잎과 가지가 어긋나기를 한다. 습지를 좋아하며, 뿌리가 땅밖으로 나온다. 기근이라고 한다.

**화살나무** 가지에 화살에 붙이는 날개처럼 생긴 것이 붙어 있다. 어린가지의 날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의 굵기보다 크다. 가을철에 예쁜 붉은색으로 물든다.

**참나무류** 겨울철에 떨켜충이 잘 발달되지 못하여 낙엽을 많이 매달고 있다. (대표적 참나무 :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잎이 2장이며, 가공하기 쉬워서 예부터 장려정책으로 보호되었다.

**층층나무** 나무의 수형을 보면 가지가 층층으로 올라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년생 가지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5월에 흰 꽃이 핀다.

**루브라참나무** 대왕참나무라고도 하며, 북미원산이다. 가격이 싸므로 조경으로 많이 심겨진다.

**산수유** 민가에 많이 볼 수 있다. 봄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 꽃자루가 있어서 그 끝에 꽃을 피운다.

**생강나무** 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봄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 꽃자루가 없이 뭉쳐서 난다.

**자작나무** 추운지방의 나무로, 천마총의 관재료로 사용된다. 수피가 매우 희며 기름기가 많아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